

11년째 인기 경찰청 '찬불가 교실'

노래하는 1등 포교사

서울 서대문에 소재하는 경찰청 본청 법당에서 매주 월요일 점심 시간에 진행되는 '찬불가 교실'이 본청 근무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포교의 가교 역할을 독특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 점심시간, '개 눈 김주동' 점심 공양을 마친 본청 근무자들이 찬불가 교실이 열리는 법당에 모여 노래를 부르고 있다.

찬불가 교실은 본청 경찰불자회(회장 박재진)가 만들었지만, 회원보다도 일반 경찰이나 사무직원에게 더 큰 호응을 얻고 있어, 1천 2백여 본청 근무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불심의 씨앗을 심는 발심의 요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찬불가 교실 운영을 맡고 있는 최옥자(본청 과학수사과) 씨에 따르면 지난 11년간 운영된 찬불가 교실에 드러나, 종교가 없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제는 수제를 받을 정도로, 찬불가 교실은 불자 만들기 일등 공로자다.

우선 '보현행', '푸른 연꽃', '연꽃 피는 날'과 같은 찬불가 외에도 화려한 가요에서 최신 노래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여, 불자가 아닌 사람들까지도 부담 없이 찬불가 교실을 노크할 수 있는 수업 분위기가 지금의 찬불가 교실을 만드는 데 한 몫을 했다.

여기에 노래 지도를 맡고 있는 원로가수 남강수씨(대한불자가수회) 씨가 노래 지도 과정에서 간고히 풀어놓는 불교 관련 이야기, 발심시키는 단초로 작용했다. 지난 91년 본청에 찬불가 교실의 문을 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그는, 매주 일요일 사찰 법회에

원로가수 남강수씨 지도

가요·최신곡에 법문까지

일반인 불교귀의 이끌어

참석, 스님의 법문을 요약해 다음 날인 월요일 정오 찬불가 교실에서 노래를 지도할 때 이를 재미있게 재구성해 들려주곤 했다.

이러한 과정이 11년간 반복되면서 찬불가 교실이 본청 안에서 포교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 또한 본청 현관에 마련된 '호돌이 문화강단'에서의 찬불가 공연과 본청 내 공식 동호회로 등록된 점도 찬불가 교실이 본청 내에서 인기를 얻는 데 일조했다.

최옥자 씨는 "본청 경복회가 지난 5년간 회장의 공적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그 맥이 단절되지 않고 불자 경찰들의 신심을 다지는 것은 물론 일반 근무자들이 불교에 관심을 갖도록 발심의 계기를 제공한 것은 찬불가 교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회장을 선출, 5년간의 공적을 메운 본청 경복회는 6일 기초교리 강화를 개설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경승실장 자우스님의 강의로 진행된 기초교리 시간에는 40여 회원들이 참석, 불교공부에 열의를 보여주었다. 기초교리 강좌의 총 12회 강좌가 끝나면 수계법회로 회향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본청 경복회는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자우스님의 집전으로 정기법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마음공부의 일환으로 '서예 교실'도 운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소년가장 후원등 봉사 재발심

대우 항공우주 법우회 14돌

25일 오후 6시 성주사 대웅전에서 뜻 깊은 행사가 열렸다. 올해로 창립 14주년을 맞은 대우종합기계 한국항공우주산업 불교법우회(회장 정진환)가 기념법회를 봉행한 것.

"신행단체가 지역 사회에서 그 역할을 찾지 못하면 존재의 이유를 잃게 된다"는 정 회장의 말이 있었던 탓인지, 기념법회에 참석한 50여 회원들은 14주년을 기점으로 앞으로 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전파하는 신행 활동에 더 주력하자고 다짐했다. 지난 14년간 법우회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회원들의 신심을 다지는 일 외에도 지역 불교 발전에 밑거름이 됐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창원의 '시민의 날'이나 '초파일'에 어김없이 연등회를 마련하는 것이며, 매달 50만원 상당의 후원금은 10여 명의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점이 그렇다. 특히 직장 내에서 법우회 이름으로 불우이웃돕기 후원제자를 개설하고 직장 동료들에게 적극 홍보해, 현재 200여



불교법우회가 3월 창원병원을 방문해 위로법회를 봉행한 모습.

직장 동료들이 매월 2,000원을 보시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게 했다는 점도 법우회의 빼놓을 수 없는 신행의 성과다.

또한 법우회는 청년 불교회, 한가람 청소년문화재단 등 창원시 주요 신행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단초도 제공하고 있다. 정 회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그것을 서로의 신심을 북돋우는 자양분으로 삼는 모임이 되겠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불자 타면 택시요금 할인"

운불련 임원회의 추진 결의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회장 김주본, 이하 운불련)가 불자 운임료 할인을 추진하는 등 포교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12-13일 제주시 흥법정사에서 열린 운불련의 전국임원회의에서 결정됐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13개 지역 회장단은 "운불련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찾자"는 데 생각을 같이하고, 신도증을 제시한 승객의 운임료를 할인하는 것 외에도 스티커 활성화를 위한 홍보 스티커제작 사업제 등을 확대하고, △운불련 제복 △운불련 택시 마크 등을 통일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종단의 관심과 지원 촉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김주본 회장은 "하루 평균 1백여 명의 승객을 만나고 있는 회원들은 불교포교의 첨병"이라며 "결의된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아상 깨고 이웃을 부처로 보자"

금강경 독송회 전국법회



어 새벽에는 회원들의 신행 발표회와 불우이웃 및 북한동포를 위한 모금도 진행됐다. 신행 발표회에서는 각자 생활 속에서 자기를 초월해 복을 지어가는 실천, 직장에서 동료 및 부하직원들을 부처님으로 보는 신행, 업보를 해탈해가면서 내연의 평화를 찾아갔던 체험, 등이 발표돼 동참한 회원들의 신심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날 김재웅 법사는 "누구든지 나보다 선근이 깊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며 "누가 잘못된 것이든, 비록 나라에서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야 자신의 업장을 닦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강경독송회(지도법사 김재웅)가 15, 16일 500여 명의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경주 일대에서 전국통합철야법회를 봉행했다. (사진) 15일 저녁 9시 김재웅 법사의 법문으로 시작한 이번 철야법회는 금강경 7독과 미륵존여래불 정진과 독송회의 발원으로 이어졌다. 이

석불연 흥천지역 답사



한국석불문화연구회는 16일 강원도 홍천 및 양양지역 석불을 견학하는 9월 석불전답사를 실시했다(사진). 15명의 동참자들은 이날 홍천 물결리 석조여래좌상, 양평 파사산성내 마애여래입상 등을 견학했다.

은평구불심회 정기법회

은평구불심회는 17일 서울 진관외동 삼천사에서 오후 7시 9월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50여 회원들이 동참한 이날 법회는 지도법사 성은스님(삼천사 주지)의 법문과 금강경 강의 등으로 진행됐다. 불심회는 관내 70여 개 사찰을 돌며 매월 초하루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도시철도 법우회 독송정진

도시철도 법우회는 20일 오후 7시 서울 답십리 관음정사에서 9월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동참한 20여 회원들은 천수경 독송과 정근 그리고 관음정사 주지 경덕 스님의 법문을 듣고, 법우회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부산 한빛은 참선실수

한빛은행 부산불자회는 8일 오후 5시 부산 수영구 망미동 영주암 자비원에서 9월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20여 회원들의 108배로 시작한 이번 법회는 영주암 회주 정관스님의 법문과 참선실수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한빛은행 부산 및 서울 불자회는 11월 3-4일 합동법회를 계획하고 있다.

대한중석석불회 관음정근

대한중석초경(주) 석불회는 3일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정기법회와 사찰 순례 일정을 논의하는 등 하반기 실행 활동을 점검했다. 또한 9월 정도 운문사에서 20여 회원들이 동참한 9월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게시판

알림

▲ 무료법률상담=낙동종합사회복지관은 22일부터 매월 2, 4주 토요일 오전 10시 전세, 채무, 보상, 노동, 이혼 등 생활 전반에 관련된 법률문제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 방법은 복지관 접수 → 전화상담 → 변호사 사무실 의뢰. (02)271-0560

가 마련됐다. 이용 시간은 매주 월-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02)817-8054

▲ 창작찬불가 공모=조계종은 제3회 창작찬불가 공모대회를 개최한다. 불교적인 정서가 함축된 노래 2곡까지 응모할 수 있으며, 응모 마감은 10월 14일까지이며, 가사가 적힌 멜로디 악보 1부와 카세트테이프를 제출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해야 한다. (02)739-1830

모집

- ▲ 사랑의 쌀 후원자=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25일까지 한가위를 맞이해 사랑의 쌀 모금 참가자를 모집한다. 쌀은 무의탁 독거노인들에게 전달된다. (02)385-1351
▲ 능인선원 출판사원=능인선원은 출판관련 업무를 맡게 될 유급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인문사회계열 대졸자. (02)577-5800
▲ 수강자 후원자=정도회는 교도소 1방 1사람 인연맺기 동참자를 모집한다. 동참자는 수강자 1인에게 매달 1500원을 후원해 '월간정도'를 법보

시한다. (02)587-8992

- ▲ 수화교육 희망자=연화복지원은 수화교육 희망자를 모집한다. 교육은 매주 일요일 수시로 개별 지도된다. 한편 불교교리, 운전(실기), 컴퓨터 교육도 신청 받는다. (02)2202-5831
▲ 발마사지 교육 희망자=한솔종합복지관은 발마사지 교육 및 파출부 희망자를 모집한다. 발마사지 교육은 무료이며, 선착순. (03)716-4215
▲ 유급 가정봉사원=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유급 가정봉사원을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20-50세이며, 무의탁노인에게 말벗, 생활상담,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지원 서비스 제공. (02)2203-3677

▲ 북카페 청소년 자원봉사자=보리수향 북카페에서는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봉사내용은 정리 및 소개이고, 월-금요일 오후 1-6시 실시한다. (02)2282-1100

- ▲ 가정봉사원 모집=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가정봉사원을 모집한다. 주 1회 성동구 무의탁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가정봉사는 식사준비, 청소, 주변정돈, 편지쓰기, 생활상담 등. (02)2282-1100
▲ 명절용품 후원금=부산진구재가노인복지센터는 무의탁 독거노인 명절용품 후원자를 모집한다. 후원 방법은 과일 구매에 사용될 후원금 기탁. (05)1866-0454

인생을 바꾸는 아름다운 힘 세이아바타 부처님과 큰 스승들의 말씀, 그 찬란한 환희의 빛- 21세기 최첨단 의식공학 프로그램으로 음미에 어울린다. 지금 당신을 자아탐사 여행을 통한 진정한 행복/풍요/건강으로 초대합니다. 02) 782-0022 www.sayavatar.com

티베트 성지순례 노하우 - 국내 1위 ●●●● 동치지마십시오! 본 여행사의 노하우를 모두 담았습니다 출발일 : 10월 20일(토) 7박 8일 접수마감 : 10월 13일 참가비 : 179만원(비자, 보험료 외 일체 포함) 문의 : (02)722-8121, 8125 주최 : 세계일류여행사, 티베트 문명과학문화재단